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

김해 독서대전 사전행사

내달 3·10·17일 개최

김해시가 다음 달 3·10·17일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사전 홍보 프로그램인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동시를 지은 시인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첫 강의는 다음 달 3일 김해기적의도서관에서 이봉직 시인의 '씻! 시 탄생의 비밀'이란 주제로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봉직 시인은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고 동시 '웃는 기와'를 지었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문인으로 평가받아 최근 '제2회

금강일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음 달 10일에는 '수박씨'를 지은 최명란 시인이 장유도서관에서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발상, 즐거운 동시 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꾸민다.

최명란 시인은 지난 2005년 조선일보, 200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이래 수십 편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천상병 시상, 방정환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글자동물원'으로 알려진 이안 시인도 다음 달 17일 화정글샘도서관에서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글자동물원에서 동시랑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시와 동시, 평론을 함께 쓰고 있는 이안 시인은 지난 1999년 등단했으며, 격월간 동시 전문지 '동시마중'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문의 및 접수는 시 인재육성지원과에 전화(055-330-6686)로 하면 된다.

김용락 기자 rock@kndaily.com